

최근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흐름: 2000~2006년도 연구물 분석

한 기 순

인천대학교

양 태 연

인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재교육 관련 연구물의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변화상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연구, 영재와 영재교육 등 영재교육 관련 논문을 주로 게재하는 학술지와 함께 한국학술정보원의 자료 중 영재를 키워드로 하여 총 35종의 학술지에서 521개의 논문과 49개의 박사 학위 논문이 연구자료로 활용되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영재관련 논문을 크게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령 및 학년,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도별 추이도 살펴보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며 그 다음으로는 영재성의 요인 및 발달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예상대로 수학/과학 영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언어영재와 예술영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5년 들어 미성취 영재에 대한 많은 관심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학년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보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2004년에 들어 유아영재에 대한 연구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많았으며 실험연구와 상관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주제어: 영재연구, 영재연구의 흐름, 연구주제, 연구방법

교신저자: 한기순(han@incheon.ac.kr)

I. 연구의 필요성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영재교육은 한마디로 중흥기를 맞아 숨 가쁘게 활발히 진행되었다. 98년도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전국 8개 대학에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설치 운영되었고 2007년 현재 전국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의 통과, 2001년 영재교육증장기(2001~2006) 종합발전 방안 수립,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통과, 2003년 우리나라 첫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및 시도교육청 중심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본격 가동, 2005년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몇 가지 굵직한 변화들만을 나열해도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의 결과로 우리의 영재교육이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않은 영재교육의 양적인 팽창, 그리고 평등주의와 엘리트즘 사이의 갈등과 반목 등으로 인해 현 영재교육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영재아동들을 표면적인 수준에서 심층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영재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효과적인 영재교육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도구들을 개발하며, 영재교육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동시에 발전적인 방향을 탐색하는 등 올바른 영재교육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이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고민하게 하며, 영재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적 경험을 추구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적인 방향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재 영재교육의 구도와 방향을 설정하며,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질문들이 해결되었고 어떤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가늠케 한다. 즉, 연구를 통해 특정 이슈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부각시키며, 이를 통해 이 분야에 새롭게 부각되는 새로운 과제들을 발견하게 한다.

영재교육 관련 연구들을 통해 영재교육 영역에서 초기의 몇몇 질문들은 이미 답변되어졌고, 그러한 답변들이 우리의 지식과 상식의 일부가 되게 하

기도 한다며 Reis(2004)는 영재교육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영재성을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의 경험이 모두 중요하며, 학교 안 밖에서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는 영재성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축적된 연구결과들은 더 이상 nature vs. nurture의 논쟁을 지속시키지 않았다. 지난 30년 간 영재교육 분야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여온 그룹핑과 속진 관련 이슈들은 Brody(2004)가 이와 관련한 논문을 소개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룹핑, 심화, 속진 모두 영재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이제 어느 하나를 고집하기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즉, 과거의 이러한 건전한 논쟁이 영재교육 분야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더 미래지향적이고 사려 깊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함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 즉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어오고 있다. 초기에는 기초 연구와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오다가, 1983년 과학 고등학교가 설치 운영되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판별도구, 교육과정 개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후 1995년도까지 일반 학교에서 영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성이나, 이들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현장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8년도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센터에서 수용하는 중학교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 관련자들이 중심이 되어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대체로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과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조석희, 2002). 최근 들어 영재교육에 대한 개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차원의 영재교육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개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도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기초연구

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최근 2006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온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에 대해 그 흐름을 분석해보고 향후 지향하여야 할 연구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즉, 그동안 어떠한 연구주제와 방법으로 영재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가를 되짚어보는 것은 향후 영재교육의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주요한 질문들을 제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과제라고 사료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영재와 관련된 논문만을 게재하는 ‘영재교육연구’와 ‘영재와 영재교육’의 논문, 국회도서관의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학술정보원 논문 중 ‘영재’를 keyword로 검색하여 수집한 논문들이다. 한국학술정보원의 자료 중 이 연구에 사용된 학회지는 교육심리연구, 교육학연구, 과학교육학회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교육과정연구, 창의력연구, 아동교육 등 총 35종이었다. 이 연구를 위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분석된 논문의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영재교육 관련 논문자료

연도	게재된 논문 개수	박사학위 논문
2000	52	1
2001	39	1
2002	59	5
2003	128	6
2004	77	7
2005	87	18
2006	79	11
총합	521	49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논문을 크게 연구주제와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영역에서 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영재교육연구’와 ‘영재와 영재교육’에 게재된 논문만을 중심으로 별도로 분석하였다(<표 2, 3> 참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재성의 요인 및 발달 부

<표 2> 2000~2006년까지 영재교육연구의 연도별 발표논문 편수¹⁾
단위: 논문편수(%)

영역	구분	00	01	02	03	04	05	06	총계
연구 주제	법령, 전망과 기대, 방안, 동향, 제도	4(7)	4(10)	8(10)	6(3)	5(5)	5(4)	12(11)	44(6)
	영재성의 요인 및 발달	7(11)	8(20)	14(18)	32(17)	15(14)	29(20)	8(7)	113(15)
	영재의 특성(인지적)	3(5)	1(3)	3(4)	12(6)	14(13)	17(12)	14(13)	64(9)
	영재의 특성(사회·정서적)	4(7)	2(5)	6(8)	14(8)	11(10)	17(12)	8(7)	62(9)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수업모형, 교수학습	22(35)	5(13)	24(30)	44(24)	26(23)	27(19)	33(28)	181(24)
	평가	3(5)	4(10)	0(0)	44(24)	0(0)	4(3)	1(1)	56(8)
	선발 및 판별	2(3)	8(20)	8(10)	8(4)	7(6)	7(5)	9(8)	49(7)
	창의성	9(15)	2(5)	6(8)	13(7)	8(7)	15(11)	13(12)	66(9)
	문제해결력, 문제발견력	2(3)	1(3)	1(1)	2(1)	5(5)	8(6)	7(6)	26(4)
	부모 및 가족관련	1(2)	1(3)	3(4)	3(2)	1(1)	4(3)	2(2)	15(2)
	교사관련	1(2)	1(3)	2(3)	5(3)	12(11)	5(4)	3(3)	29(4)
외국사례	3(5)	2(5)	3(4)	2(1)	5(5)	2(1)	2(2)	19(3)	
합계	61(100)	39(100)	78(100)	185(100)	109(100)	140(100)	112(100)	724(100)	
연구 대상	수학/과학 영재	22(100)	20(83)	28(85)	82(91)	29(78)	43(74)	33(68)	257(82)
	언어 영재	0(0)	1(4)	1(3)	3(3)	6(16)	2(3)	3(6)	16(5)
	예술, 체육 영재	0(0)	3(13)	1(3)	4(4)	1(3)	5(9)	3(6)	17(5)
	미성취 영재(ADHD)	0(0)	0(0)	1(3)	2(2)	1(3)	8(14)	1(2)	13(4)
	소외(장애)영재	0(0)	0(0)	2(6)	0(0)	0(0)	0(0)	9(18)	11(4)
합계	22(100)	24(100)	33(100)	91(100)	37(100)	58(100)	49(100)	314(100)	
연령 및 학년	유아	0(0)	3(20)	2(13)	5(11)	10(36)	5(14)	5(10)	30(15)
	초등	2(29)	7(47)	7(47)	21(46)	11(39)	20(55)	18(37)	86(44)
	중고등	4(57)	5(33)	6(40)	19(41)	7(25)	10(28)	22(45)	73(37)
	대학생	1(14)	0(0)	0(0)	1(2)	0(0)	1(3)	4(8)	7(4)
합계	7(100)	15(100)	15(100)	46(100)	28(100)	36(100)	49(100)	196(100)	

1)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 등 상황에 따라 중복체크 하였음.

<표 3> 2000~2006년까지 연구방법의 연도별 발표논문 편수

단위: 논문편수(%)

연도	주제 실험 연구	조사연구			상관 연구	질적 연구	문헌 고찰 및 제언	검사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검사도구 타당성연구	합계
		특성	실태 및 인식	사례					
2000	3(27)	2(18)	1(9)	0(0)	0(0)	0(0)	5(46)	0(0)	11(100)
2001	3(10)	2(7)	3(11)	3(11)	1(4)	1(4)	12(42)	3(11)	28(100)
2002	2(6)	4(13)	0(0)	4(13)	2(6)	0(0)	19(59)	1(3)	32(100)
2003	5(14)	4(11)	4(11)	1(3)	7(19)	0(0)	12(31)	4(11)	37(100)
2004	2(13)	1(6)	2(13)	1(6)	3(19)	0(0)	6(37)	1(6)	16(100)
2005	1(5)	6(27)	0(0)	1(5)	3(14)	0(0)	8(35)	3(14)	22(100)
2006	2(10)	2(10)	0(0)	0(0)	2(10)	0(0)	11(51)	4(19)	21(100)
합계	18(11)	21(12)	10(6)	10(6)	18(11)	1(1)	73(43)	16(10)	16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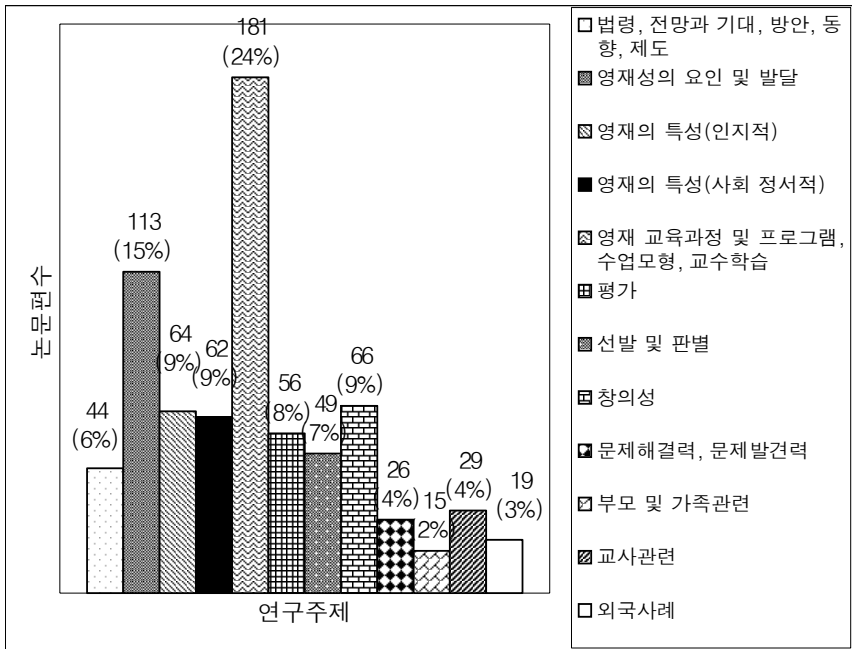
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예상대로 수학/과학 영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언어영재와 예술영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미성취 영재는 2005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령 및 학년에서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보다 오히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가 많았으며 실험연구와 상관연구가 나머지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II. 연구결과: 2000~2006년까지의 국내 영재교육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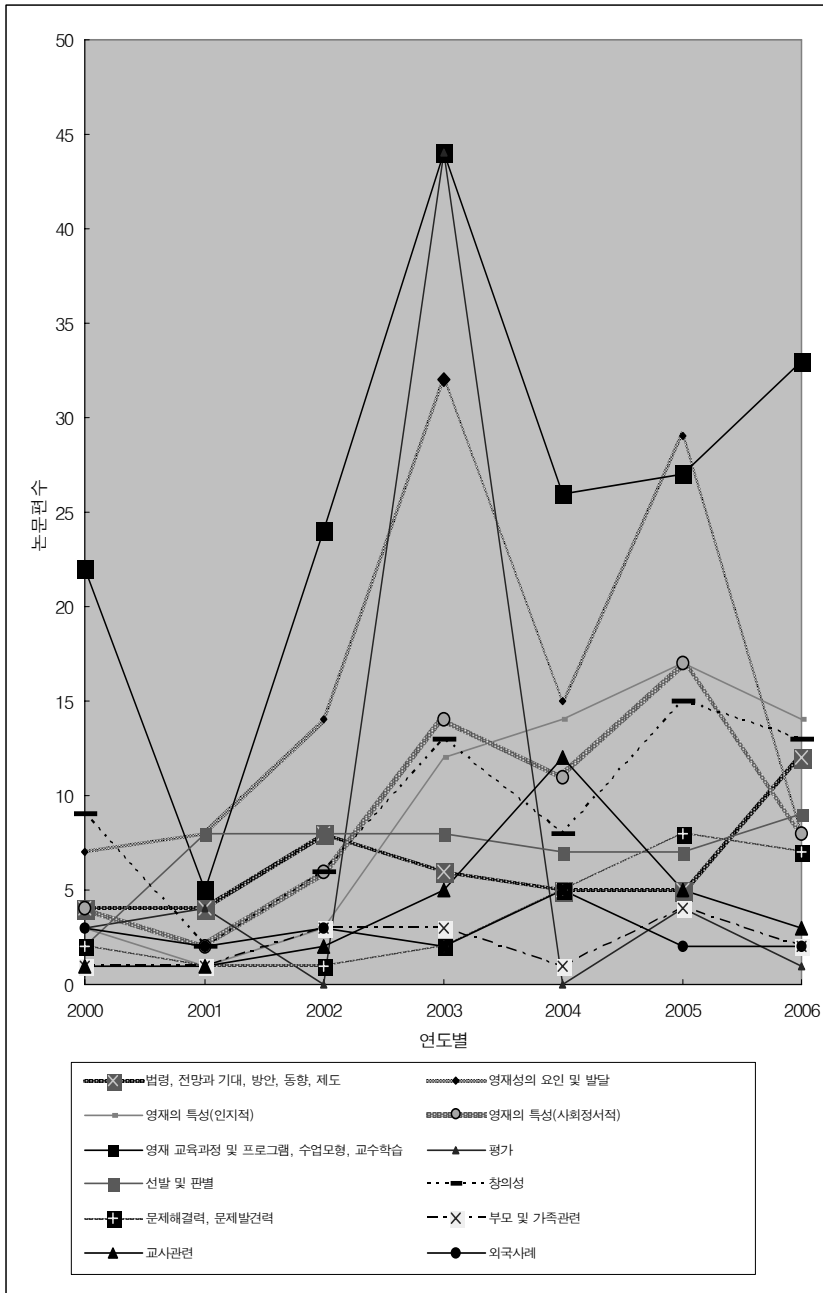
1. 연구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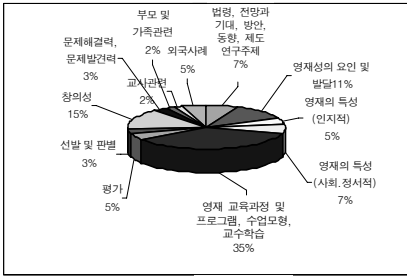
지난 7년 동안의 국내 영재교육연구를 살펴보면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24%)가 가장 많았고, 영재의 인지와 사회-정서적 특성이 (18%, 각각은 9%씩) 영재성 요인 및 발달(15%)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그림 1] 참조). 시기적으로 영재교육이 초창기인 만큼 실제 영재교육에 어떤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활용되어야 할까에 관한 높은 관심이 연구로 반

영된 것은 당연한 귀추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영재의 인지와 사회-정서적 특성이 많이 연구되었는데, 영재교육 초기에는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2003년 이후부터 영재들의 사회, 정서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즉, 영재들의 영재성 계발에 있어 사회, 정서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면서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인해 사회,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이 영재교육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사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재들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검사지나 설문지를 활용한 심리측정적 접근 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을 정보처리적 접근방법이나, 초보자-전문가 비교접근 방법, 인본심리학적 접근방법 등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영재교육 연구방법 상의 문제점은 조석희 연구(2002)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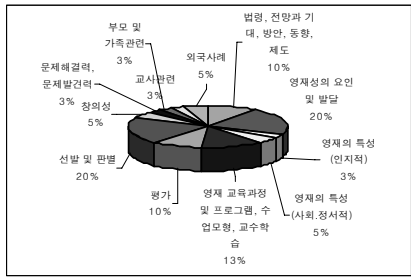


[그림 1] 2000~2006년 국내영재교육연구의 연구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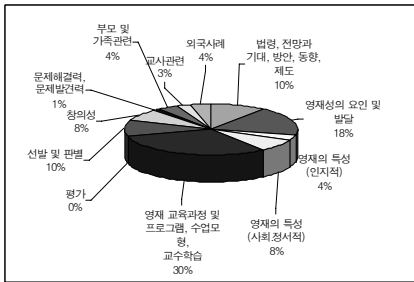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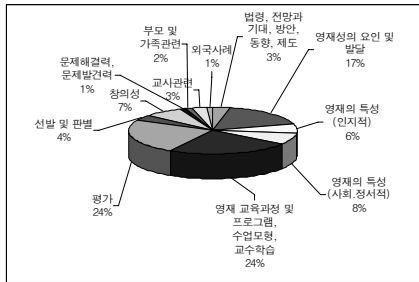
< 2000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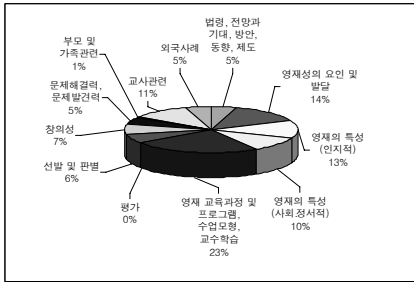
< 200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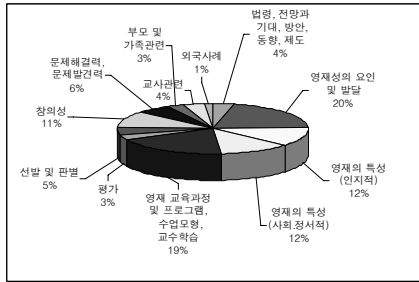
< 200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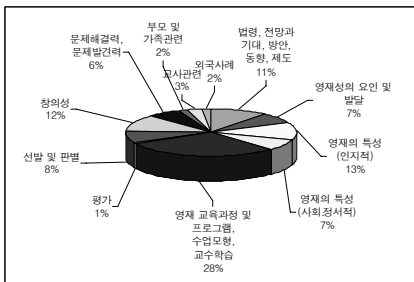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



< 2006년 >

[그림 2] 2000-2006년 연구주제와 연도별 흐름.

2000~2006년 사이의 영재교육연구 연구주제의 연도별 흐름([그림 2] 참조)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3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15%)에 대한 논문이 많았다. 앞서도 잠시 언급되었듯이 1998년부터 영재교육이 처음 시작되어 영재교육이 상대적으로 초창기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시기 영재교육 현장에 투입될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이 가장 시급하였으며 따라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창의성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영재의 판별과 교육에 있어 창의성이 중요함을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1년도의 영재교육 연구주제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의 발효와 2001년 개정에 따라 2000년(7%)보다 영재교육 법령, 전망과 기대, 방안이나 동향에 대한 연구가 10%로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발 및 판별, 영재성의 요인 및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2002년에도 여전히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30%)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영재성의 요인 및 발달(18%)에 대한 연구가 많다. 그 다음으로 영재의 특성(인지, 사회·정서)이 12%, 영재관련 법령 및 제도와 관련한 연구(10%)와 선발 및 판별에 관한 연구(10%)가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이다.

2003년도에는 다른 년도에 비해서 특히 평가(24%)에 관련된 연구주제가 많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학교육학회에서 ‘과학영재 평가체제의 구축’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는 여전히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24%)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2000년도와 비교했을 때 점차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영재 및 영재교육에 대해 폭넓은 주제가 다뤄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004년도에 역시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23%)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그 외에 영재의 인지적(13%) 또는 사회·정서적(10%)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성의 요인 및 발달(14%)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 및 가족관련연구,

교사관련연구 및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계속해서 그다지 활발히 연구되지 않아 이러한 영역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의 경우 영재성의 요인 및 발달(20%)과 영재들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특성(2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재교육 초창기에는 영재아들을 실제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점차적으로 영재아, 즉 영재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영재아중심의 연구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성(11%)과 문제해결력 및 발견력(6%)에 대한 연구도 이 시기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은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8년이 되는 시점으로서 영재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으로 영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28%)에 대한 논문과 영재교육의 앞으로의 전망과 동향(11%)에 대한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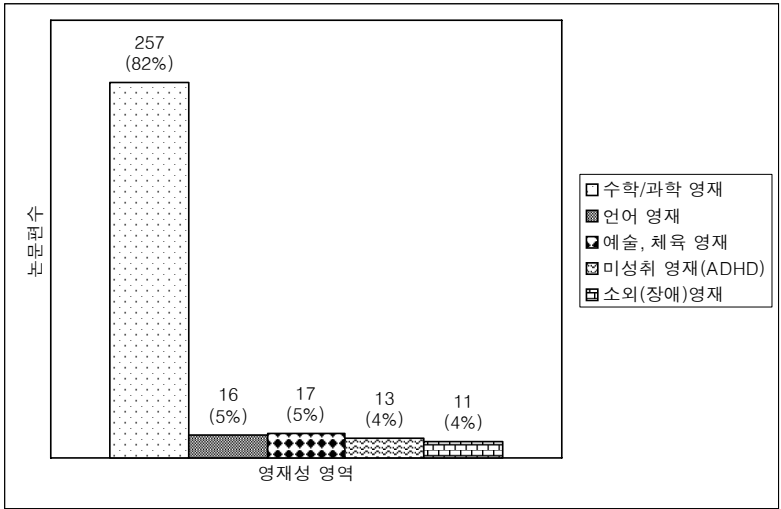
2. 연구 대상

가. 영재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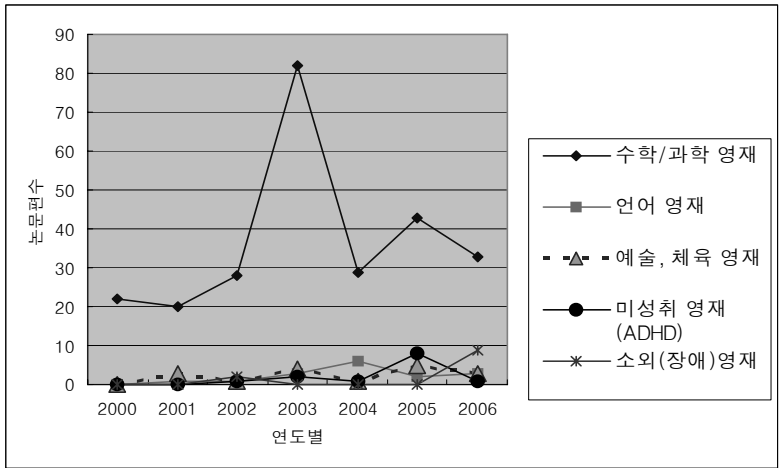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학/과학(82%)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의 영역은 미진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연도별 영재성 영역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다. 영재성 영역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 참조), 1998년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였기에 2000년도에는 연구된 영재연구의 거의 모든 논문이 수학/과학영재를 대상으로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와 예술 등 다른 영역의 영재에 대한 관심이 이 시기에 거의 부재하였고, 영재교육의 초창기인 만큼 미성취나 소외영재 등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부재했던 시기라고 사료된다. 2000년과 다르게 2001년부터는 수학/과학영재(83%) 뿐만 아니라 미약하나마 언어(4%)와 예술(13%)영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2002년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 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소외(장애)영재(6%)에 대한 부분과 미성취 영재(3%)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학/과학영재(85%)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에는 언어영재에 대한 연구가 16%로 언어영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예술 및 체육영재와 미성취영재에 대한 연구도 간간히 수행되고 있으나 수학, 과학 영역과 비교하여 여전히 매우 적게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에는 ADHD 증후군 및 미성취 영재(14%)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예술영재(9%)와 언어영재(3%)영재도 충분치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영재교육의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영재교육을 받는데 소외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방, 시골, 부모의 사회경제적(SES) 능력이 떨어지는 소외(장애) 영재(18%)에 대한 관심이 2006년 들어 대폭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 영재(6%), 예술 영재(6%)에 대한 논문도 꾸준히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수학, 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영재교육이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예측가능한 결과이지만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특히 언어, 인문사회, 예술 등 수학, 과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영재교육이 2004~2005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존하는 이 영역의 연구자료는 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재교육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외영재의 경우도 2005~2006년부터 몇몇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으나 소외영재의 정의나 판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역시 기존의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해결책은 소외영재의 정의, 판별,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국내외사례분석을 포함한 실증적 연구의 뒷받침이라고 본다.



[그림 3] 2000~2006 국내영재교육연구의 영재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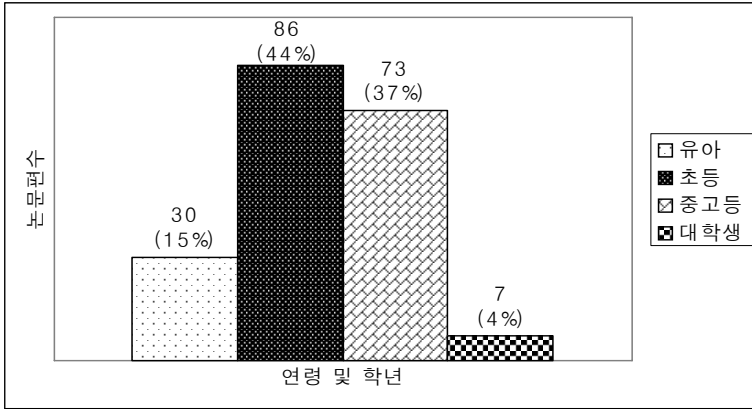
[그림 4] 2000~2006년 영재성 영역의 연도별 흐름.

나. 연령 및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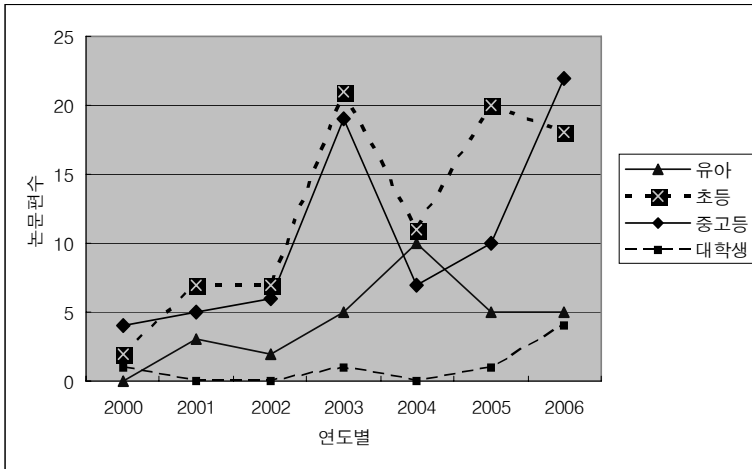
2000~2006년 사이 국내 영재교육연구에서 연령 및 학년과 관련하여 변

화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년에 걸쳐 초등(44%)학생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고등(37%)학생을 다룬 연구가 많았으며 유아(15%)의 경우는 2004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도에 들어 유아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 연구의 36%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유추하여 조기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유아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아영재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교육 상에서 유아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재한 것은 연구와 실체가 연결되지 못하고 이분화된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도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영재교육 초창기에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는 시점으로써 영재교육이 과연 그 학생들에게 진로나 성취 부분에 있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지난 8년간의 영재교육의 효과를 돌아보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이 된 영재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전체 연구의 8%로 그 포션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연구의 연령 및 학년별 분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사항 중 하나는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특정 시점을 한시적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고, 유아, 초등, 중등으로 연계되어 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재의 특성이나 성향 등이 여러 발달단계를 거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변화하는지를 종단적,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영재성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영재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의 효과나 의미 등을 분석하는 연구역시 극히 소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의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영재교육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효과를 추론하며 향후 영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5] 2000~2006 국내영재교육연구의 연령 및 학년.



[그림 6] 2000~2006년 연령 및 학년의 연도별 흐름.

3. 연구 방법

2000~2006년 사이 영재교육에서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적 성격의 연구가(43%)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단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조사연구(실태 및 인식조사와 특성조사)와 실험연구가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지난 7년에 걸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주제의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주제를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이 영재교육과정 관련 이론 제시나 모형분석 등의 문헌고찰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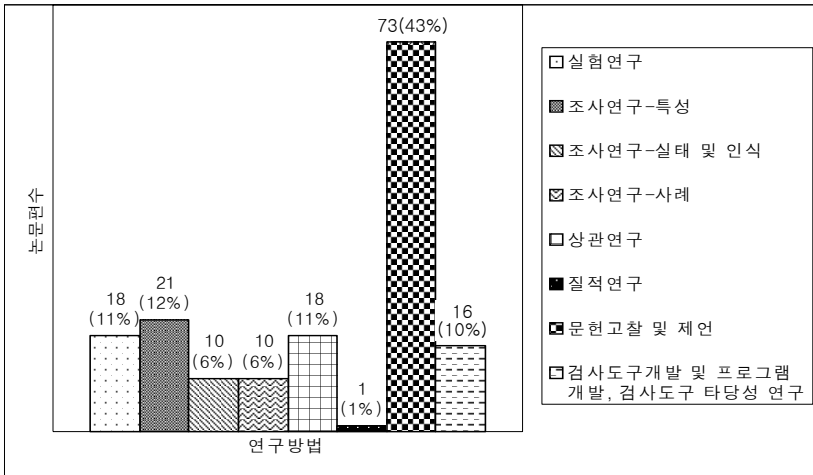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헌고찰적 성격의 연구들이 연구의 비용과 노력적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기가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이며 영재라는 소수의 특정집단에서 실험 및 조사 연구 등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다소 영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영재교육의 대상이 극소수이고 개개 학생의 개인차가 매우 커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특성상 영재교육의 현상과 그 내부의 학생과 교사들의 문제의식을 질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외국에서는 최근 들어 종종 시도되고 있으나 이 역시 타 학문분야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제한적이다(Barone, 2003). 우리의 경우 아래의 [그림 7]에서 지적되듯이 국내에서는 영재아나 영재교육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영재성과 영재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영재교육에서 거의 부재한 질적연구방법은 영재교육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화를 위해 활성화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개발연구는 영재교육의 특성상 검사도구,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등과 같은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꾸준히 수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는 논문화되지 않은 교육개발원의 영재교육 도구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면 양적으로는 더 증가된 수치를 보일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발연구와 관련하여 방법론상 한계점은 개발된 도구나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들의 내용이 기술되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나 효과성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된 도구나 프로그램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검증의 부재는 개발된 자료의 수정, 보완,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도구나 프로그램들의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자료라 평가된다. 따라서 모든 개발연구들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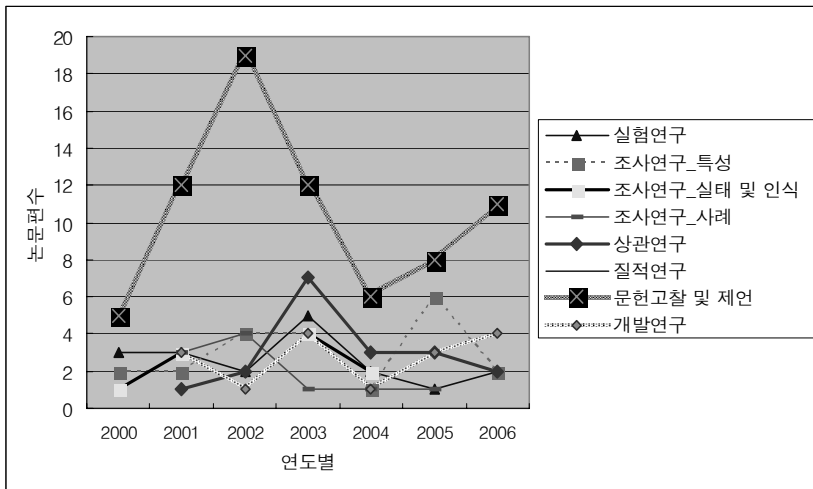
투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몇몇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참여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소감을 특별한 분석 없이 기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상의 고급화도 요구된다. 또한 영재교육은 그 성격상 응용학적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변인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변인들이 영재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들의 수행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방법론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또한 실험이나 상관연구들에서도 비교집단 없이 영재집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영재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영재관련변인의 요인분석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부연하면 실험연구들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실험연구라고 보기 어려운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관련변인들의 엄밀한 통제가 어려웠고, 영재들의 특성상 비교집단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실험을 통해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비교를 통한 사전-사후의 효과성을 도출하기보다는, 실험집단 내에서의 사전-사후 비교에 그치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분석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연구방법에 적절한 통계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지만, 단순 집단비교나 상관 분석 등에 대부분 치우쳐 있으며 요인, 판별, 회귀, 경로 분석 등의 통계 처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영재학자들은 영재교육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문분야와 비교하여 새롭거나 대안적인 연구철학이나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뒤쳐져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Coleman, Sanders, & Cross, 1997; Cross et al, 2003). 이는 국내의 영재교육에서도 분명 예외가 아니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영재교육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의 선진화가 영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림 7] 2000~2006 국내영재교육연구의 연구방법.



[그림 8] 2000~2006년 연구방법의 연도별 흐름.

4. 결론 및 논의

지난 7년간의 국내 영재교육에 대한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영재교육

의 경향과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재연구 주제의 경우 초기에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과 인지적인 특성에 집중하여 연구되었던 것이 점차적으로 영재의 성향이나 사회·정서적 분야, 부모, 교사변인 등 점차적으로 주제가 다양화 되고 다각적인 관점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 또한 수학/과학영재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지만 점차적으로 언어, 예술, 미성취, 소외영재 등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연령 및 학년의 경우도 중고등에서 점차적으로 초등, 유아로 확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영재교육연구가 초기에 비해 확산, 확대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접근과 다각적인 관점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재교육연구가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연구방법과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과 아쉬움이 내제하고 있음과 동시에 앞으로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영재교육이 초창기를 넘어 과도기를 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영재교육 관련 연구도 영재성의 진정한 이해와 영재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추구의 명분으로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향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영재교육 연구의 몇 가지 방향과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각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연구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점차 다양하고 그리고 다각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연구주제에서는 영재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이론적 고찰과 영재의 특성분석에, 연구대상에는 수학/과학영재에 집중되어 있다. 영재교육 연구가 주제 및 대상,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다양해져서 영재와 영재교육과 관련한 연구의 폭과 범위가 넓어져야 하며 동시에 연구방법 상에서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보다 심도 깊은 영재교육 연구의 결과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 종단 연구 수행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종단연구가 몇 가지 있다. Terman의 연구와 Bloom

의 연구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단연구가 시작되었던 바 있으나 영재연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는 거의 희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나마 이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실정이다. 영재교육이 시작된 지 8년,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범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영재교육에 대한 반성과 고찰, 전망, 그리고 영재성 발달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중단적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인내 등,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 등이 병행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조석희(2002)는 지적한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2003년 우리나라 첫 영재학교로 개교한 만큼 이 학교 졸업생에 대해 장기적인 중단연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영재교육 효과성 분석 연구

영재교육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 8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영재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영재교육이 그 소기의 목적한 바대로 창의적인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의 창의성 계발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장, 단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재교육은 과연 일반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되고 있으며, 영재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식하는 영재교육의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영재교육의 양적, 질적 효과가 담보되어질 때 앞으로 계속되어질 영재교육의 방향모색이 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VanTassel-Baska(2006)의 20개 영재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Landrum과 Shaklee(1998)의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급까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에 관한 연구 그리고 Delcourt(1994a, 1994b)의 다양한 영재교육 학습방법의 효과에 관한 양적, 질적 연구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참고할 좋은 선행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선진국의 영재교육 성공사례들은 교사가 영재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영재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연구 및 실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미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영재교사의 자격요건 및 제도적 장치는 아직 잘 정비되지 않았으며, 이들을 위한 연수 및 재교육의 기준 및 적절성도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영재교사들을 위한 자격증제도 도입과 승진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영재교사 연수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유능한 영재교사 변인의 분석, 영재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탐색 등 영재교사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과제가 수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영재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일반학교 내에서 영재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서 영재아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그룹핑,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영재교육이 대학부설 및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의 형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와 영재교육의 연계를 위한 타당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영재교육이 현재와 같이 일반교육과 분리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안과 함께 일반교육 내에서 영재교육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 역시 향후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여섯째, 영재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이론적 모형 개발 연구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재들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모색하느냐 이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교수-학습 모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영재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의 개발에 사용되어지는 이론적 모형이나 틀을 살펴보면 Renzulli의 삼부심화 학습모형이나 Bloom의 taxanomy, George Betts의 자기주도적 학습모형, VanTassel-Baska의 통합적 교육과정 모델(ICM) 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중 Renzulli의 모형이 지배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론적 틀이나 모형이 문화와 학문영역을 초월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다 우리의 교육적 상황, 교실환경과 우리 영재학생들의 특성과 정서에 적합한 프로그램 모형이나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연구하려는 노력과 투자가 적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재성의 정의와 개념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영재성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논의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과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Renzulli(2002)는 그의 세 고리 개념을 발전시켜 최근에 Operation Houndstooth 이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영재아의 낙관주의와 도덕적 용기, 인간문제에 대한 감응, 최상의 호기심과 내적 동기, 앞날에 대한 명확한 비전 같은 인성적인 면이 더해져야 영재성이 최적으로 발현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Lubinski와 Benbow(2000) 역시 성인들의 지적능력발달에 대한 Ackerman의 PPIK 이론을 제시하면서 아동들의 경우도 유사하게 인성과 흥미 요인이 그들의 영재성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비인지적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들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비인지적 요인은 생득적인 측면과 습득적인 측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영재성의 정의 및 개념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문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재성의 영역특수적 접근이 최근연구의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영역별 영재성의 정의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부재하다. 영재성의 정의와 개념은 영역적 고려 없이 영역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인가? 혹은 영재성의 정의가 지금의 거시적 접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왜 유사한 유전적 배경과 환경적 경험을 갖고서도 아동들의 학습동기, 창의성 등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영재교육을 받고도 평범해

지는 아동이 다수 있는 반면, 왜 어떤 아동들은 영재교육의 경험 없이도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가? 조속성은 영재성이 발현되는 데 있어 필수적 요인인가? 창의적 혹은 생산적 행위는 모든 영재성의 필수적 요소인가? 혹은 이는 그 자체로 일종의 영재성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적절한 교육적 개입 없이 영재성은 사라지는 것인가? 혹은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인가? 미성취 아동은 영재아동으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혹은 가시적으로 영재성을 드러내는 아동들만을 영재아동으로 인식하여야 하는가? 과연 몇 퍼센트의 아동을 영재아동으로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느 시대와 사회이건 영재성의 정의는 그 시대와 사회의 철학과 변화상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영재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진리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되, 그 사회의 특수한 교육문화적 상황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미국 영재교육학회는 영재성 개념과 정의만을 연구하는 분과(Conceptual foundation division)를 둘 정도로 영재성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연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영재교육의 대표적인 저널 중 하나인 Roeper Review는 2006년 28호를 영재성의 개념적 토대 구축에 관한 특별호로 꾸몄다. 영재성의 개념적 토대 구축은 영재성의 이론적, 개념적, 철학적, 역사적 측면을 공고히 하며 영재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현재와 향후의 방향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 영재성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영재교육의 출발은 영재에 대한 개념화에 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나타난 영재교육대상자는 ‘지도력’ 등의 개념이 빠지기는 했으나, 미국 국무성의 영재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고 최근의 영재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과 상당히 접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의 항목을 영재의 개념 속에 포함시킨 것은 단선적인 개념에서 복합적인 특성화 개념으로의 진일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일반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등등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제시된 개념들이 어떤 내적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숙제로 남아 있는 듯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이 명료화될 때

한국에서의 영재교육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의 영재아에 대한 정의 및 영재성의 기본적 개념과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해 영재성의 보편적 토대 위에 우리의 고유한 교육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된, 우리의 다양한 영재성의 정의와 체계적인 연구들을 통해 보다 활발히 연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2000년 이후 국내 영재교육연구의 경향과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고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몇 가지 연구의 방향에 대하여도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미국은 1988 The 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를 통해 27개주에서 46개의 영재교육관련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이와 유사한 대규모의 영재교육 기초연구를 위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국립영재교육연구소(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도 이 Javits fund에 의해 가능한 사업이었다. Javits fund에 의한 영재교육 관련 기초연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선발모형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들이 3년 동안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수개월 단위나 길어야 1년 단위의 정부지원 연구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인 우리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연구가 체계적으로 기획되고 진행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를 보완하고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정부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의지가 중요하며, 또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이끌어낼 여러 개인 연구자들의 영재교육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난 7년간의 영재교육 관련연구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7년 후의 영재교육 관련 연구는 영재교육 영역의 두 전문학술지인 ‘영재교육연구’와 ‘영재와 영재교육’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 영재교육 전공 대학원의 활성화, 영재교육 기초연구를 위한 인식 및 지원 확대 등으로 그 내용과 방법론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조석희 (2002).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현황과 필요성**.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 개소식 발표자료집.
- Barone, D. (2003). Turning the looking glass inside out: A gifted student in an at-risk setting. *Gifted Child Quarterly*, 47(4). 259-271.
- Brody, L. E. (Ed.). (2004). *Grouping and acceleration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Coleman, L., Sanders, M., & Cross, T. (1997). Perennial debates and tacit assumptions in the education of gifted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41(3). 105-111.
- Cross, T., Stewart, R., & Coleman, L. (2003). Phenomenology and its implications for gifted studies research.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6(3). 201-220.
- Delcourt, M. A. (1994a).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programming arrangements on student learning outcomes*(Research Monograph 94108). Storrs, C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Delcourt, M. A. (1994b). *Qualitative extension of the learning outcomes study*(Research Monograph 94110). Storrs, CT: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Landrum, M. S., & Shaklee, B. (Eds.). (1998). Pre-K-12 gifted program standard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Lubinski, D., & Benbow, C. P. (2000). States of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1). 137-150.
- Reis, S. (Ed.). (2004). Essential readings in gifted education(series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Renzulli, J. S. (2002). Expanding the conception of giftedness to include co-cognitive traits and promote social capital. *Phi Delta Kappan*, 84(1). 33-58.
- VanTassel-Baska, J. (2006). A content analysis of evaluation findings across 20 gifted programs: A clarion call for enhanced gifted program development. *Gifted Child Quarterly*, 50(3). 199-215.

= Abstract =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in the Area of Gifted Education in Korea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Tae-Youn Yang

University of Inch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of research in the area of gifted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ublished manuscripts on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 between 2000~2006. About 521 articles among 35 journals and 49 dissertations listed in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including the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and the journal of giftedness and gifted education, were mainly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The articles were examined by topics, domains, ages, and research methods both yearly and synthetically. The most widely researched topic was curriculum and program issues in gifted education, and the topic related to factors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was the second. Most studies have continuously focused on the mathematically and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and studies on gifted students in the areas of art, language, and other domains were scant. Issues on underachieving gifted students and underachievement were researched actively in 2005. More research has utilized elementary students as samples rather than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Young children under 7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by researchers after 2004. Related to research methods, literature review was the most widely used, survey was the second, and experimental and correla-

tional studies were the next. Implications related to results we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Research in gifted education, Trends of research in gifted education, Research topic, Research methods

1차 원고접수: 2007년 3월 28일
수정원고접수: 2007년 8월 6일
최종게재결정: 2007년 8월 8일